

해방기 이광수와 ‘친일’의 기표

이민영*

요약

이광수는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지점에 놓이는 작가인 동시에 대표적인 친일파 작가이다. 근대문학의 작가이면서 제국에 협조한 이광수는 그 자체가 근대와 제국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다. 따라서 친일파-이광수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것은 식민사회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인 동시에 과거 청산이후의 근대적 국민국가 수립과정에 내포된 모순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본고는 이러한 친일파-이광수의 특수한 의미를 전제로 해방기 이광수를 재현하는 서사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해방기 이광수는 친일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호명된다. 친일의 기표와 이광수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방이후 조선사회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광수’를 재현하는 다양한 서사들이 등장하게 된다. 친일파-이광수의 상은 때로는 자기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때로는 타인의 고발을 통해서 형상화된다. 친일파-이광수의 자기재현 양상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작품은 「나의 고백」이다. 「나의 고백」은 이광수를 친일파로 규정하는 당대의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광수-민족주의자의 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나의 고백」에서 이광수는 여전히 민족을 위한 친일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논리의 이면에는 제국의 법을 신뢰하고 그 속에서 민족의 이익을 추구하는 식민주의적 합리성이 존재한다.

친일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이광수는 청산의 대상으로 재현된다. 김동인의 「반역자」와 이석정의 「한계」는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서 이광수를 반민족으로 규정하고 타자적 관점에서 친일파-이광수를 재현하는

* 서울대학교 강사



서사들이다. 김동인의 「반역자」는 이광수를 민족의 적으로 규정하고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김동인 그 자신이 친일과 민족의 기표사이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친일파-이광수는 곧 민족주의자 김동인을 구성하는 과정의 일부였음을 점을 알 수 있다. 이석징은 이광수의 내지식 이름을 친일파 주인공의 이름으로 설정하고 자살로써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친일파 허민의 모습을 그린다. 진정한 참회의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허민은 당대사회가 기대하는 친일파의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허민이 자살을 통해 청산을 완료하고자 했을 때 민족주의자라고 간주되었던 서술자-나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져진다는 점에서 완료되지 못하는 청산의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해방기 친일파-이광수의 표상은 다변적인 모습으로 훈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광수 재현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민족의 적으로서의 친일의 기표가 아닌, 확정되지 못하는 친일파-이광수의 정체성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청산이 반민족=친일의 의미설정을 통해서는 완료될 수 없는 과제였음을 드러낸다. 식민과거를 청산하는 것은 친일파를 민족의 적으로 돌리고 이들을 처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의 과거를 기억하고 이를 추모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반성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주제어: 청산, 반민특위, 자기재현, 반민족, 국가건설, 고백 소설

목
자

1. 서론
2. 제국의 죄인이 된 친일파와 국민국가의 이상
3. 불안정한 반민(反民)의 정체성과 미완의 청산
4. 결론



1. 서론

한국 문학사에서 이광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광수의 『무정』은 언제나 신문학의 첫 장에 자리하게 되고, 한국의 근대적인 문학은 그로부터 탄생된 것¹⁾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문학이란 何오’라는 질문에 대한 이광수의 답을 통해 한국문단은 ‘문학’의 정체성을 구성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진 작품의 지위와는 달리 이광수의 작가적인 삶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식민지 시기 이광수가 근대 문학의 시작을 알린 인물인 동시에, 협력자의 전형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광수는 제국주의와 근대주의의 긴밀한 관계를 자신의 삶을 통해 체현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점이자, 협력의 기억으로 존재하는 이광수의 모순적인 삶은 곧 근대라는 이상에 담긴 불안을 상징하는 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이광수의 모순적인 의미에 주목하여 친일파²⁾-이광수의 정체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친일파-이광수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구성해내는 것은 바로 해방직후이다. 과거 청산이라는 목표 하에 조선의 전 사회는 건설되는 국가의 외부에 놓여야 할 반민족의 정체를 밝혀내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친일’의 기표는 바로 반민족과 등가로 읽히면서 청산의 첫 번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반민

1) 조연현은 1955년 『현대문학』에 발표한 내용을 옮긴 『한국현대문학사』에서 이광수의 『무정』을 <근대문학의 탄생>장에 서술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미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이광수가 남북되기 전 『근대조선소설사상계보론서설』(1949년)에서 조연현은 이미 이광수의 『무정』을 “근대적인 사상의 최초의 표현”이라 평가하고 이광수의 문학을 한국 근대문학의 시발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85; 조연현, 『근대조선소설사상계보론서설』, 『신천지』, 1949.8. 참조.

2) 본고에서는 ‘친일파’가 해방기에 대일협력자를 일컫는 일반적인 표현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이를 대일협력자, 반민자, 부역자 등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사용한다.



족-친일파의 긴밀한 관계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데, 해방직후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식민지 시기의 '친일파'와 해방직후의 '모리배', 그리고 제국의 '괴뢰'인 좌익세력이 모두 국가건설의 '적'으로 설정되면서 반민족의 내포대상은 빠르게 변화하였던 것이다.³⁾

식민사회의 대표적 지식인이었던 이광수는 해방직후 민족의 적인 '친일파'로 호명되고, 전쟁발발을 기점으로 '납북문인'으로 다시 문단 내에 자리 잡게 된다. 해방이후의 '이광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 국가의 건설과정 속에서 '반민족=친일파'의 관계가 변화는 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이광수의 재현양상에 주목하여 해방이후 '반민족'의 정체성과 국가건설론에 내포된 모순의 지점들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광수에 관한 연구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따라서 그 축적된 결과 또한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광수의 '문학'을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광수'라는 인물에 대한 연구는 '친일파-이광수'의 얼굴을 전면적으로 다뤄야한다는 점에서 일정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정』의 작가로, 한국 근대 문학의 시작지점으로 이광수를 이해하는 연구들에 비해 계몽주의적 작가였다가 대일협력의 지식인으로 귀결된 이광수의 삶 자체에 주목한 연구들은 현저히 부족하다. 그가 구성한 근대문학의 배경에 대일협력자의 모습이 놓여있다는 점은 쉽게 망각되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일제 말의 문학에 주목하는 다양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3) 「나의 고백」이 내세운 민족주의자-이광수의 상은 바로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이승만은 새로운 대통령으로서의 정책을 내세운 대통령 시정방침(1948년 9월 31일)에서 이미 사상의 통일을 제안하고 단일민족으로서의 통합을 강조한바 있다. 민족의 내포 대상이 사상을 중심으로 재구성되면서 협력의 과거를 무화하고 친일 반민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수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서중석,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2006, 21면. 참조.



이광수의 친일문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해방기 이광수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들도 발표되었다.⁴⁾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친일파 문인으로 간주되었던 이광수가 다시 문학사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기표로서 ‘이광수’를 연구한 결과들이 축적되었다.⁵⁾ 하지만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들 역시 친일파-이광수라는 정체성에 내포되어 있는 불안한 관계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3.1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2.8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뒤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제국에 협조한 이광수의 모습에는 친일파와 민족 주의자라는 이분법을 가로지는 복잡한 배경과 관계들이 내포되어 있다. 해방기는 이러한 양가적이고 모순적인 친일파-이광수의 정체

- 4) 김지영, 「『사랑의 동명왕』과 해방기 민족적 영웅의 호명 그리고 이광수」, 『춘원 연구학보』 6, 2013.
 김종수, 「1950년대 출판시장에서 이광수의 위상」, 『우리문학연구』 43, 2014.
 송영순, 「해방기 이광수 시에 나타난 ‘고백’과 ‘사랑’의 의미」, 『한국문예비평연구』 51, 2016.
 서은주, 「센티멘탈 이데올로기: 해방 후 이광수의 “자기서술”과 고백의 윤리」, 『민족문학연구』 58, 2013.
 Kim, Seong-Kon, 「Reading Kwangsoo Lee’s “my Confession” and *The heartless*」, 『춘원연구학보』 6, 2013.
 김경미, 「해방기 이광수 문학의 자전적 글쓰기의 전략과 의미」, 『민족어문학』 59, 2011.
 이동하, 「이광수와 채만식의 해방기 작품에 대한 연구」, 『배달말』 16, 1991.
 노연숙, 「해방 전후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민족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26, 2008.
 정호웅, 「해방 후의 이광수 문학」, 『춘원연구학보』 8, 2015.
 방민호, 「해방 후의 이광수와 장편소설 사랑의 동명왕」, 『춘원연구학보』 8, 2015.
 5) 공임순, 「이광수 복권과 문학사 기술의 관련 양상」, 『춘원연구학보』 9, 2016.
 김현주, 박현호, 「이광수와 근대 한국사회의 감성」, 『한국학연구』 29, 2013.
 안서현, 「흔들리는 이름—1950~1960년대 ‘춘원 이광수’ 표상의 변화와 담론적 전유 양상연구」, 『상허학보』 44, 2014.
 전소영, 「전유와 투쟁하는 전유, 최인훈의 춘원」, 『한국현대문학연구』 48, 2016.



성을 폭발적으로 드러내면서 ‘친일’의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적 지점들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본고가 해방기 이광수의 모습에 주목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1948년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이후 반민법)은 식민지 과거를 직시하고 협력자들을 근대적 국민국가의 법 체계를 통해 단죄하고자 하였던 최초의 시도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설정된 반민족은 해방된 조선사회에서 국가의 경계를 상상하게 하는 근간이 되었다. 하지만 반민법은 결국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시효가 만료되어 버렸고, 청산의 과제는 중단되고 말았다. 중단된 청산의 과정 속에서 가장 화려하게 부활한 것은 바로 이광수였다. 반민특위는 시효중지 하루 전까지 이광수의 기소결정을 하지 못했고 결국 기소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이미 공소의 시효가 지난 뒤였다. 해방기 이광수는 중단된 청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며,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민족문학의 장에 유입된 문제적인 인물이다.

청산되지 못한 식민사회와 이를 과거로 삼는 오늘날의 국가와 민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친일파-이광수의 정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자였으며 친일파였던 이광수는 해방기 반민법 실행의 불/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반민법을 통해 수행될 수 없었던 청산의 목표를 다시 질문하게 해준다. 이를 위해 본고는 ‘친일파’의 상징으로서 이광수가 해방기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기 이광수 재현 양상은 친일의 기표가 이광수라는 실체와 결합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효과들과 한계들을 목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친일파의 기표를 확정함으로써 제국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과제를 종결하고 국가건설론으로 급급하게 이행하고자 했던 해방기 민족담론의 심층을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국의 죄인이 된 친일파와 국민국가의 이상

해방이후 친일파 청산의 문제는 긴급한 민족적 과제로 제기되었는데, 1948년 제헌국회를 통해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친일파 청산’의 실질적인 과정이 수행된다. 이광수는 일본에 협력한 대표적인 문인으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친일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간주되었고,⁶⁾ 그 결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의 활동이 시작된 지 약 1달 만에 체포된다. 당시의 신문들은 일사분란하게 이광수 체포에 관한 소식들을 전달하고 있는데⁷⁾ 이는 당대 사회가 친일파-이광수에 대한 부정의 감정만큼이나 강한 관심과 흥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사릉에 있던 이광수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후에도 바로 서울로 상경하지 않는다. 당시 서울에서 전문학자의 집합을 요구하는 긴급한 목소리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⁸⁾ 그가 동료 문인들의 요청과 행동에 동조하지 않고 홀로 사릉 등지에 머물렀던 것은 대일협력 활동을 했던 과거에 대한 염려 때문일 것이라 짐작된다.⁹⁾ 하지만 서울로 상경하지 않고 사릉과 양주 등지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그는 침묵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비판에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스스로의

6) 반민특위 활동초기에 발간된 책도 이광수를 대표적 친일파로 규정하였다. 대표적인 친일단체에서 활동했던 그의 직책과 행적을 정리하고, 주요 친일과 16명의 친일 행적을 정리한 내용 속에도 포함하였다. (중략) 이처럼 이광수는 광적인 친일행위로 ‘미친 광수’로 불릴 만큼 적극적 친일 행위자인 민족반역자로 규정되었다. 허종, 「해방 후 이광수의 “친일문제”인식과 반민특위 처리과정」, 『대구사학』 119, 2015, 18면.

7)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 중앙일보』를 비롯한 유력한 신문매체들은 “李光洙 遣捕 예고”, “特委, 三月中旬에 公判”, “反民者摘發은 四十六名: 특위, 3월 중순에 공판, 반민자적발은 사십육명”등의 제호로 해방 후 친일파-이광수의 체포와 처리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한다.

8) 권영민,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운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9-10면.

9) 방민호, 앞의 글, 42면.



과거를 기록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소년편」(1947.12)과 「나-스무살고개」(1948.10), 「나의 고백」((1948.12)은 이러한 이광수의 자기재현의 욕망을 담보하면서 친일파-이광수의 과거를 다시 쓴다.

해방이후의 사회에서는 식민과거에 대한 자기고백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특히 이 요구는 대일협력자들을 대상으로 더욱 강력하게 요청되었다.¹⁰⁾ 해방기의 민족담론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통해 제국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다. 이광수의 고백에 대해 사람들의 기대하는바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이광수가 ‘나’를 고백하겠다고 밝혔을 때, 조선민족은 당연히 그것이 대일협력에 대한 반성과 뉘우침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이다.¹¹⁾ 「나-스무살 고개」가 발간된 당시 이 작품을 광고하고 있는 신문기사는 이광수의 ‘나’의 고백이 어떻게 기대되고 있는가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림 1〉의 광고는 ‘나’를 “장편자전소설”로 규정하고 이 작품에서 “스무살 고개에 경험한 모든 비밀”과 “그의 참회록”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라 설명한다. 그의 고백은 ‘친일파’라는 규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특히 「나-스무살 고개」는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고(1948.9.22.)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시작하는(1948.10.22) 상황에서 발간된 작품이다. 다음 해 1월 8일 박홍식이 최초로 체포된 후 한 달여 만에 이광수가 체포(1949.2.8)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광수의 고백이 얼마나 긴급

10) 김남천 외, 「문학자의 자기비판」, 『인민예술』 2호, 1946.10.

11) 대충은 깜짝 속았다. 제호가 「꿈」이요 입장이 참회록을 써야 할 입장이요 참회록이 나을 만한 날짜도 되었는지라 으레히 참회록으로 믿은 것도 무리하달 수 없다. (중략) 제호부터 「나」이매 이는 정녕 참회록으로 볼 것이다. 이것이 참회기인지 무엇인지는 필자도 모른다. 김동인, 「춘원의 나」, 『신천지』 3권 3호, 1948.3.



한 상황에서 요청된 것인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나-소년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스모살 고개」는 작가 개인의 사적인 연애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의 고백에는 광고에서 언급한 스무 살의 “비밀”만이 있을 뿐 대중이 기대한 “참회”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나-소년편」에서는 문의

누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스스로가 “악인의 적”에 등록되었음을 고백한바 있다. 이때 그의 참회는 다만 아내와의 결혼관계를 어기고 혼외 관계를 했다는 것에 한정되어있다. 그리고 「나-스모살 고개」 역시 스무 살 무렵 이광수 자신이 근무하던 오산학교에서의 갈등관계를 서사의 중심으로 삼고 실단과의 관계를 고백하면서 그녀와의 헤어짐(자살)으로 소설을 결말짓는다.

「나-소년편」과 「나-스모살 고개」가 이광수가 본격적으로 대일협력 활동을 하기 이전의 시기에 관한 것이므로 이 두 작품에서 대일 협력에 대한 고백과 참회의 기록을 엿볼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기대와 다른 고백에 대한 비판을 인식이라도 한 듯 이광수는 자신의 고백이 너무 천천히 진행되고 있음을 반성하고¹²⁾ 해방의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짧고 간결하게 기록하는 「나의 고백」을 창작한다. 「나의 고백」은 「나」와 달리 소년시절의 활동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중심으로 식민과거의 삶을 기록한다. 대중들은 비로소 「나의 고백」을 통해 그의 참회



〈그림 1〉 『동아일보』, 1948.10.24.

12) 이광수, 「나의고백」, 『이광수전집』, 삼중당, 1962. p.278.



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나의 고백」은 다시 한 번 더 이들의 요구를 빗겨 나간다.

「나」에서 이광수는 하나의 개인으로서 자신의 사생활을 상세히 고백하는 대신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침묵하였다. 그 결과 친일파-이광수의 과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백도 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었다. 「나의 고백」에서는 「나」에서 기록된 개인적 연애의 서사와 오산학교 재직 시절에 경험한 선생들과의 갈등의 구조가 모두 생략된다. 「나의 고백」은 「나」에서 드러난 개인의 정체성을 모두 소거하고 역사적 인물로서의 「나」를 구성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고백된 「나」의 정체성 역시 당대사회가 반성하기를 요구했던 친일파-이광수의상을 부정하면서 민족운동가-이광수의 삶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의 고백」은 동학에 연루되어 서울로 상경하는 소년시절부터 해방된 후 「나의 고백」을 쓰게 되는 시점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다루고 있다. 「나의 고백」에서 이광수는 「나」에서 시도하였던 자기비판이 완료되지 못했음을 설명하면서 반민법의 심판에 앞서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는 글을 쓰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소설의 결말부에 제시되는 이러한 의도는 결말에 이어지는 〈친일파의 변〉과 상반되는 것으로 그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나의 고백」의 첫 장은 〈민족의식이 짹 트던 때〉로 구성되어 있다. 그가 어떻게 대일협력을 하게 되었는가, 대일협력에 대해 얼마 만큼의 죄의식을 느끼는가를 고백할 것이라 예상하였던 독자들에게 그의 고백은 이미 그 첫 장에서부터 예상 밖의 것이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나의 고백」에서 대일협력에 대해 다루는 것은 다만 〈나의 혼절〉과 〈민족의 보존〉 두 장 뿐이다.¹³⁾ 그리고 〈민족의 보존〉 역시 자신의 과거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

13) 김경미, 앞의 글, 728-731면; 이동하, 앞의 글, 4면.



해 일본에 협력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라 할 때, 기대되었던 친일파의 고백은 〈나의 훼절〉에 해당하는 장뿐이다. 그 외의 부분은 모두 이광수의 삶을 민족주의자의 삶으로 재현하고 있을 뿐이다.

『나의 고백』을 통해 구성되는 이광수의 모습은 전형적인 애국자의 모습이다. 『나의 고백』에는 소년시절 민족의식을 깨닫고 오산학교의 교사가 되어 민족을 위해 희생을 다짐하는 이광수, 그리고 이러한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2.8 학생독립운동과 3.1운동의 실천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독립 정부의 뿌리가 되는 임시정부의 수립에 참여한 이광수의 모습이 그려진다. 『나』의 서사가 개인의 차원에서 이광수의 연애와 사랑을 다루면서 지식인으로서의 과오(대일협력)를 서술하지 못했다면, 『나의 고백』은 지식인 이광수의 삶을 전면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파가 아닌 민족주의자 이광수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작품의 결말부분에서 “정경대도를 걸은 사람이 아니었다.”¹⁴⁾는 발언과는 전혀 다르게 『나의 고백』은 확고한 일관성을 바탕으로 민족주의자-이광수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고백』이 발간된 1948년의 이광수는 매우 분명하게 ‘민족의 죄인’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반민법의 처벌 대상이 된 이광수는 단순히 ‘올바르고 도리에 맞는 길’(正逕大道)을 걷지 못한 비윤리적인 지식인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처벌받아야하는 죄인이었다. 〈그림2〉는 반민특위에 조사받는 이광수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광수는 반민법에 의해 처벌받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며, 대중적인 관심 속에서 이광수의 얼굴은 곧 친일파의 얼굴로 재현된다. 해방 후의 이광수는 더 이상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었으며 법에 따른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반민법에 의해 체포되기 전에도 이광수는 “매국노 이완용의 후손”으로, 내선일체에 협력하였던

14) 이광수, 앞의 글, 277면.

“향산 광랑”(香山 光郎)으로 지속적으로 호출됐었다.¹⁵⁾ 해방 사회에서 이광수는 곧 친일파¹⁶⁾였으며, 따라서 그는 언제나 민족의 죄인으로서 민족의 타자라는 위치(反民族)에 놓여 있어야했던 것이다.

『나의 고백』이 문제적인 것은 이러한 해방직후의

상황에서 어떠한 내적 갈등도 드러내지 않은 채 이광수가 스스로를 민족의 죄인이 아닌 제국의 죄인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민특위의 문초를 받는 이광수의 소식을 전하면서 한 신문기사는 이번의 고백(반민특위조사)에서는 죄를 반성할 것인지를 질문한다.¹⁷⁾ 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이광수의 고백(『나의 고백』)이 당대사회에서 얼마만한 비판과 조롱을 받았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이광수는 친일파의 고백에 대한 민족의 요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죄인 아닌 제국의 죄인으로 스스로를 형상화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에게 있어서 대일협력행위는 다만 민족을 위해 노력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소설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반민특위의 조사 과정에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해



〈그림 2〉 『경향신문』, 1949.2.10.

15) 고원섭, 「이완용의 후손들」, 『신천지』 1권 7호, 1948.8.

16) 1946년 10월 동아일보와 자유신문 등은 이광수가 홍사단국내위원회의 이름으로 주요한, 죄린 등과 모임을 가졌음을 보고하면서 이들이 세력을 강화하여 친일파·민족반역자 숙청의 열망을 냉각시키고 이를 용호하는 정체로 가는 듯 한 인상을 주고 있다면 강력하게 비판한다. 「親日·反逆者들이 擡頭 崔麟, 李光洙, 金大羽, 朱耀翰, 朱耀燮, 桂光淳等이 謀議」, 『동아일보』, 1946.10.10.

17) 「第二次『나의 고백』 李光洙 이번은 真實悔懺?」, 『경향신문』, 1949.2.11.

방이후의 조선사회에서 친일파의 얼굴로 대표되었던 이광수는 자신을 민족주의자로 그리는 것에 어떠한 모순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나의 고백』은 제국의 죄인으로서 이광수의 삶을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주의자-이광수를 증명하는 구조를 취한다. 민족의식이 짹트는 그 순간 일본 현병대에 쫓겨 서울로 올라왔던 것처럼, 『나의 고백』을 통해 재현되는 이광수의 삶은 항상 제국으로부터 감시받고 처벌당하는 제국의 죄인으로서의 삶이다. 그리고 제국의 죄인으로서의 생활은 곧 민족주의자의 삶으로 치환된다. 동경에서 학우회 활동으로 인해 일본 경찰의 감시 하에 놓였던 그는 일제의 감시와 억압을 전제로 2.8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독립운동가가 될 수 있었다.

해방기의 사회가 이광수를 향해 '민족의 죄'를 물었을 때, 이광수는 '제국의 죄'를 통해 질문에 답한다. 이광수가 거리낌 없이 스스로를 민족주의자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중과 괴리된 죄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 이광수가 반민법의 처벌 대상이 되기 전 고백을 서둘렀던 것은 협력의 죄를 반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국의 죄를 역설하기 위함이었다. 이광수는 '반민족-친일파'라는 민족의 죄를 부정하고 '조선인 민족주의자'라는 제국의 죄를 뒤집어씀으로써 새로운 참회의 지점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바로 식민지 민족이라는 '죄'를 지닌 조선 사회 전체에 대한 것이다. 해방 이후 이광수는 다시 계몽되지 못한 민족을 반성하고 민족을 위해 일하는 애국자로 등장하고자 하는 것이다.¹⁸⁾

이광수가 민족주의자에서 친일파로 전향했던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양동우회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도 제국의 죄를 통해 민족적

18) 정호웅(2015)은 해방기 이광수가 '민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특유의 친일론을 통해 다시 계몽자로 한국인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정호웅, 앞의 글, 14면.



정체성을 담보하고 민족의 발전을 주장하는 계몽주의자 이광수의 정체성은 유지된다. 수양동우회로 재판을 받은 것은 「나의 고백」에서 유일하게 스스로의 훼절을 인정하고 이를 고백하는 〈나의 훼절〉 장에 기술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양동우회와 관련된 일련의 재판과정을 기록하는 고백의 서사는 이광수를 민족주의자로 위치 짓고 그를 제국의 죄인으로 재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족을 위한 친일'이라는 모순적 논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흥미로운 서술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친일과 이광수의 애국이 제국의 법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마지막 재판에 검사는 그 논고의 대부분은 내 죄를 증명하기에 바쳤다. 그는 민족주의 계통의 범죄로 취급된 조선 청년의 칠내지 팔할이 피고의 저서에서 감염되었다는 것을 자백하였으나 그렇게 많은 청년을 그르친 것만 하여도 이 광수는 죽어도 아깝지 않다 하였고, 또 피고가 근래에 천황 중심을 말하고 내선 일체를 말하는 것은 그가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민족 운동의 한 방편에 불과하다. 이 시국에서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고는 민족운동을 할 수가 없는 까닭이다, 하고, 「피고는 죽어도 민족주의를 버릴 자는 아니니, 재판소는 그에게 속아서는 아니 된다.」

하였다. 그러고 내게 오년, 다른 이에게 사년 이하, 이심에서 와 비슷한 구형을 내렸다.

재판장이 나더러 검사의 말에 대하여 할 말이 없느냐 하기로, 나는,

「검사의 말은 옳다. 내가 천황을 말하고 내선일체를 말하는 것은 오직 조선 민족을 위한 것이다. 만일 그리 하는 것이 조선 민족에게 이익이 아니 된다면, 나는 곧 독립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하였다. 그날 변호사는 왜 그런 위태한 말을 하느냐, 아슬아슬했다고 나를 책망하였다. 그런데 의외에도, 참으로 의외에도 우리 사건은 전부 무죄라는 판결이 내렸다. 변호사들도 이 판



결을 의외라고 하였다.¹⁹⁾

수양동우회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따지고 이광수의 치안법위반 사실을 판정하는 재판에서 민족주의자 이광수를 검증해주는 것은 역설적으로 제국의 검사이다. 제국으로부터 기소당한 이광수는 제국의 죄를 인정할수록 민족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검사는 이광수를 향해 “죽어도 민족주의를 버릴 자는 아니”라는 선언을 한다. 그리고 “피고가 내선일체를 말하는 것”이 “민족 운동의 한 방편”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제국의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는 민족주의자—이광수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피고가 검사를 궁정하고 변호인을 아슬아슬하게 만드는 기이한 법정 장면이 연출된다. 검사와 피고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이들이 연대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다.

『나의 고백』이 내세우는 제국의 죄인이라는 정체성은 제국을 통해 자신의 애국을 증명하는 모순적인 방식을 전제로 한다. 제국이 친일파—이광수의 애국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제국의 법이 식민지와 제국을 관할하는 절대적 명령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광수는 자신의 대일협력 활동을 정당화하면서 정치적 발언권이 없는 백성이 통치자가 끄는 대로 끌려간다고 해도 죄가 없다는 논리를 폄고 있는데²⁰⁾, 이러한 논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 권력의 구조로서 제국이 선행한다. 수양동우회와 관련된 재판의 과정 역시 저항할 수 없는 권력으로 제국의 법이 현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의 법은 단순히 거역할 수 없는 폭압적 지도자의 논리가 아니라, 근대 사

19) 이광수, 앞의 글, 265면.

20) 설사 일본이 져서 우리에게 독립의 기회가 곧 돌아오더라도 우리가 일본과 협력한 것은 이 일에 장애는 안 될 것이다. 왜 그런고 하면, 우리는 일본 국내에서 정치적 발언권이 없는 백성이므로 전시에 있어서 통치자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의 글, 268면.



회를 규준하고 발전시키는 하나의 보편적 원리로 실재한다.²¹⁾ 제국의 법은 절대적이고 공평하게 식민지인을 처벌한다. 괴고를 향한 검사의 구형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적 과정이며, 판사 역시 법에 따라 이광수의 죄를 판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광수의 재판에서는 검사가 민족주의자-이광수를 증명하고, 일본인 재판장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친일단체인 문인협회로부터 탈퇴할 것을 요구²²⁾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의 고백』에서 법정이 제국주의적 폭력과 불의에 영향 받지 않는 일종의 치외법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제국이 근대주의의 합리성을 공유한다는 믿음에 기인한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불법적으로 병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광수는 제국의 법정에서 합리적이고 절대적인 법을 발견한다. 제국에는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법의 체계가 상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선인들이 발전하고 계몽되어 근대의 체제에 속할 수 있게 된다면 조선인들이 역시 이 합리적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이광수는 당당하게 “내가 내선일체를 말하는 것은 오직 조선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 수 있게 된다. 그는 제국을 수용하는 것이(內鮮一體)이 곧 반민족 행위라고 보지 않았다. 제국에 속하게 되더라도 “민족의 이익”을 보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민족주의의 길이었다.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이광수는 제국의 치안법위반여부를 판결하는 재판장에서 제국에 협조하는 것이 “민족의 이익”에 도움 되지 않을 때에는 자신도 “독립운동을 할 것”이라는 기묘한 독립 선언을 남긴다. 이와 같은 미래형의 독립 선언

21) 안지영(2016)은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분석하면서 이광수의 ‘수양’이 ‘인간의 욕망을 규격화되고 계율화 된 윤리도덕으로 통치하려는 주체화 전략’임을 밝힌 바 있다. 안지영, 「근면한 ‘민족’의 탄생」, 『한국현대문학연구』 50, 2016.12. 53면, 참조.

22) 이광수, 앞의 글, 264면.



속에서 민족의 독립은 연기되고, 조선인들은 이제 제국의 체제와 동행하며 근대화된 국민이라는 이상을 공유하는 운명을 부여받는다.

이광수의 협력의 논리 속에서 친일파와 애국자, 반민자와 민족주의자의 경계는 혼동된다. 근대적 국민 국가를 민족의 미래로 설정하는 한 계몽되지 못한 식민사회의 조선인들은 모두 반민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광수가 재현하는 친일파-이광수의 모습은 친일파와 반민족을 동의어로 놓고 반민족을 선별하여 청산을 완료하고자 했던 해방기 국가건설의 논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해방기의 사회는 조선인 모두에게 식민사회의 죄를 구형하려는 협력자들의 청산론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대일협력자들을 반민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이들에게 민족의 죄를 묻고자 했다. 하지만 근대적 국민국가라는 동일한 이상을 꿈꾼다는 점에서 해방기의 국가건설론은 이들의 논리를 온전히 부인할 수는 없었다. 제국에 대한 강력한 거부를 전제로 하는 국가건설론 역시 근대화된 ‘국민’이라는 친일-민족주의자의 이상을 공유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건설은 다만 친일파의 청산을 통해 달성될 수는 없었다. 근대화된 국민이라는 목표 하에서 조선인들은 다시 계몽의 대상이 되었고, 이들은 다시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증명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반민법의 실행과 처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순들은 바로 이러한 해방기 국가건설론의 균열을 증거 한다.

식민지시기 이광수는 결국 그의 민족주의를 증명하고자 했던 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가 제국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의 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법적 시효 덕분에 이광수는 제국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제국의 법 질서를 수호하면서 민족주의자로서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었다. 다시 해방이 되어 이광수가 민족의 죄에 대한 구형을 앞두게 되었을 때, 그는 한 번 더 시효 만료를 이유로



죄에 대한 처벌에서 벗어난다. 법적 시효를 전제하는 근대적 법 질서는 식민지인에게나, 반민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었다. 그리고 만인에게 공평함을 내세우는 근대적 법 체계에 대한 친일파 민족주의자의 신뢰는 독립된 국가에서도 굴절 없이 지속된다.

근대적 국민국가로 이행된 절대적이고 합리적인 법의 이름 하에서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모순과 오류들은 망각된다. 반민법의 공소시효가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일련의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긴급하게 축소되었다²³⁾는 점은 잊혀지고, 이광수의 불기소가 반민특위 내에서 기소 결정된 상태에서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날 검사가 기소를 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점²⁴⁾은 생략된다.

이광수의 불기소는 스스로의 민족주의를 증명한 결과가 아니라 긴급하게 설정된 청산의 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이었다. 결코 완료될 수 없었던 청산의 과제는 다만 시효 만료라는 이름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반민법의 실행과정은 협력의 과거를 긴급하게 소거하고 비어있는 민족의 자리에 근대적 국가의 이상을 이식하고자 했던 해방기 국가건설론의 모순과 한계를 드러낸다. 해방 이후의 한국사회는 독립을 통해 달성해야 할 국민국가의 상을 강조하면서 이제 반민족의 죄를 묻는 일을 종결하고 새롭게 건설되는 국가의 청사진을 그린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약소민족의 지위에서 벗어나 근대화된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계몽의 목소리로 민중들을 추동한다.

23) 김민철, 「탈식민의 과제와 친일파 청산 운동」, 『식민지유산, 국가형성, 한국민주주의』 1, 책세상, 2012. 246면.

24) 「이광수문제에 과특검차장 답」, 《경향신문》, 1949. 9. 10.



3. 불안정한 반민(反民)의 정체성과 미완의 청산

이광수의 「나의 고백」은 친일파-이광수의 고백에서 민족주의자의 모습을 구성해내면서 청산되어야 하는 반민족의 개념을 혼란시켰다. 하지만 당대 사회에서 이광수는 여전히 적극적인 대일협력활동을 통해 민족을 배신했던 반민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민족주의자-이광수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김동인의 소설 「반역자」(《백민》, 1946.10)이다. 김동인은 식민지시기부터 이광수의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해 이광수의 작품을 신문학사의 첫 장면에 삽입한 바 있다.²⁵⁾ 하지만 해방 이후 김동인은 이광수의 대일협력활동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비판했으며, 가장 강력하게 그의 반성을 요구하였다.²⁶⁾

「반역자」는 이와 같은 김동인의 태도를 바탕으로 이광수의 호 외 배를 변형한 오이배라는 인물을 통해 친일파-이광수의 표상을 구성해나간다. 「반역자」는 평안도에서 출생해 쓸 곳에 없는 재능을 지닌 “불행한 신동”的 모습을 통해 이광수의 소년시절을 기록한다. 소년 시절의 불행은 이광수의 자기고백 소설에서 다뤄진 바와 같이 고아로서의 삶으로 응축되고, 이러한 불행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에의 열정이 형상화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역자」 역시 오이배의 민족의식이 신학문을 통해 구체화되었음을 기록한다. 「반역자」는 동경 유학을 떠나는 오이배가 “네 칼로 너를 치리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이광수의 계몽주의에 민족적 목표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제국 일본이 달성한 근대를 선취하여 조국의 독립을 돋겠다는 오이배의 의도는 “앞서 자란 일본을 따르기 힘들겠”다는 인식 속에서 좌절되고 만다.

25) 김동인, 「춘원연구」, 『김동인전집』16, 조선일보사, 1988.

26) 김동인, 「춘원의『나』」, 『신천지』 3권 3호, 1948.3.



『나의 고백』이 기미년 독립운동을 정점으로 민족주의자-이광수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면, 『반역자』에서 삼일 운동은 오이배가 “일본의 강한 실력”과 “약자인 조선”的 모습을 깨닫는 기점이 된다. 2.8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이를 바탕으로 3.1운동의 발발을 도왔다는 이광수의 고백과 달리 『반역자』에서의 오이배는 삼일운동이후 약소 민족인 조선의 현실을 깨닫고 “조선민족의 행복”을 위해 “일본에 반역”하기를 포기하게 된다. 동경유학이후 오이배는 “협력의 호령”을 외치는 반민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전향하게 되었으며, 이후의 서사는 반역자 오이배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이와 같은 『반역자』의 서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김동인에 의해 재현되는 이광수 역시 “민족을 위한 친일”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광수의 친일이 단순히 개인의 이익과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두 작품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광수가 자신의 협조가 어디까지나 민족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자치를 통한 점차적인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반역자』의 오이배는 말 그대로의 내선일체를 희망한다.

조선이 일본에 협력을 하여, 전승자의 하나의 되면 그때 조선의 뜻으로 돌아오는 보수는 막대할 것이다. 한 번약한 독립 국가로 근근히 생명만 부지하기보다는 일본의 일부로서 승리의 보좌에 나라니해 앓는 편이 훨씬 크리라.²⁷⁾

이광수가 민족주의의 방편이었다고 주장했던 내선일체는 『반역자』를 통해 일본의 일부가 되기 위한 친일행동으로 바뀐다. 이광수가 민족의 이익에 해가 되는 순간 독립운동에 나설 것이라 주장했던

27) 김동인, 『반역자』, 『백민』 2권 4호, 1946.10, 73면.



것과 달리, 오이배의 내선일체는 이미 일본과 조선의 민족적 구획을 포기하고 일본의 이익을 조선의 이익으로 전유한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친일이 곧 민족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협력행위는 민족을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국에 대한 협력행위는 조선 민족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

김동인은 이와 같은 소설적 재현을 통해 민족의 위한 것이었다는 이광수의 친일논리를 비판하고 친일파는 민족주의자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김동인에게 있어서 제국에 협조하여 제국과 하나 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민족을 소거하고 제국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므로 민족의 이익을 위해 친일을 했다는 논리는 이율배반의 모순일 뿐이다. 하지만 이광수의 「나의 고백」에 서술된 바와 같이 그 역시 제국의 협조자였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김동인의 강력한 비판과 과거 청산의 의지는 단순히 친일파-이광수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김동인이 그의 소설을 통해 이광수에게 반역자의 기표를 부여했다면, 이광수 또한 자신의 혼란을 고백하는 순간 김동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협력자로서 김동인의 이름을 호명한다.²⁸⁾ 김동인 역시 민족주의와 친일의 기표 사이에서 불안하게 표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동인은 「반역자」를 통해 내선일체를 기준으로 친일의 기표를 완성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그는 「망국인기」(《백민》, 1947.3-1948.3)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고백하는데, 이는 친일파-이광수의 재현 과정에 내포된 '친일'의 복잡다단한 의미를 드러낸다. 「망국인기」에서 김동인은 이광수의 고백의 전략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과거를 민족주의자로 형상화한다. 문학적 업적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애국의 기표를 점유한 김동인은 군정청이 제공한 집을 통

28) 아무려나 여비는 출판업자들이 모아내고 가는 사람은 김 동인, 박 영희, 임 학 수라 하는 것만은 분명하였다. 이광수, 위의 글, 263면.



해 애국자 김동인의 정체성을 증명하고자 한다.²⁹⁾ 그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에 열중했던 것은 이광수의 소설에 남겨진 바와 같이 자기 자신 역시 친일의 기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망국인기」가 직접적으로 민족주의자 김동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면, 「반역자」는 친일파 오이배의 삶을 통해 반역자-친일파를 자신의 삶의 정반대에 놓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친일의 협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김동인은 「망국인기」를 통해 해방된 조선인을 다시 한 번 더 나라를 잃은 ‘망국인’으로 규정했다.³⁰⁾ 그는 자신의 민족적 공로의 대가였던 집을 빼앗기게 된 경위를 밝히며 해방이 되었어도 독립하지 못한 조선의 현실을 비판한다. 그리고 스스로의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민족이라는 점에서 조선인들을 망국의 민족으로 명명한다. 조선인들이 다시 망국인이 된 것은 일본-제국에 의해 그러했듯 미군정에 앞에서 조선민족은 여전히 “약소민족”인 까닭이다. 친일파 민족주의자들이 발전하지 못한 조선민족을 전제로 친일의 행동이 결국 민족을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음을 강조했던 것처럼 이광수를 강력하게 비판한 김동인 역시 “약소민족”의 논리를 바탕으로 해방된 민족의 현실을 진단하고 다시 조선의 민족이 힘을 길러야 할 것을 요구한다.

김동인의 「반역자」는 「나의 고백」과 반대되는 지점에서 친일파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하지만 김동인 그 자신 역시 친일파의 기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불안감 앞에서 김동인의 자기고백은 이광수의 고백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이광수는 “知는 힘이다.”라는 말로 〈친일파의 변〉을 마무리 한바 있다. 이광수가 〈친일파의 변〉을

29) 이민영,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국가-집’ 표상 연구」, 『현대소설연구』 49, 2012. 15면.

30) 김동인, 「망국인기」, 『백민』, 1948.3, 106-107면.



통해 내세웠던 청산의 논리는 홍제원의 목욕으로 대표된다. 그는 사십년 일정 밑에서 일본에 협력한 자와 아니한 자를 가리고 그들을 배제한다면 나라를 이룰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한다. 친일파의 청산론 속에서 식민 과거는 병자호란 당시 목욕을 하여 더럽힘을 씻어냈던 것과 같이 한 번의 의례를 통해 망각해야 할 것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 망각의 목표는 국가를 이루기 위함, 지배를 받지 말기 위함으로 귀결된다.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망국인기」에서 김동인은 이광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김동인-민족주의자의 서사를 구성한다. 그리고 해방된 사회에서 망국의 위기를 강조하면서 민족의 힘을 길러 독립된 국가를 세워야함을 강조한다. 김동인과 이광수의 고백 소설은 해방과 식민 사회라는 전혀 다른 배경을 바탕으로 하지만 근대 사회라는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약소민족의 위기를 강조함으로써 발전과 계몽의 논리로 귀착된다. 해방은 적자생존과 발전의 과제를 강조했던 민족 개량의 목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다 강력하게 지지할 수 있게 하는 사건으로 사유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민족과 등기를 이루는 친일파의 표상은 전치되고 전복 될 수밖에 없었다.

김동인이 오이배라는 이름을 내세워 친일파-이광수의 삶을 다시 쓰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면, 이석정은 이광수의 이름을 빌려와 친일파의 자살이라는 가상의 역사를 그려내고 이를 통해 친일파 청산의 과정을 완성하고자 한다. 이석정의 「한계」(《문학》, 1948. 7)는 과거 “정렬적인 프로레타리아 시인”으로서 민족운동을 하던 중 친일파로 전향하여, 다양한 비평과 시를 쓰면서 일본에 협조하고 “대동아 공영권”에서 “민족의 재생”을 주장했던 혀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작품은 가상의 인물인 혀민을 통해 친일파 청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소설 속 혀민은 이광수를 직접적으로 지시하기보다 다



양한 친일파의 형상들을 중첩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한계』는 좌인계열의 문학가동맹의 기관지인 『문학』에 실렸는데 이러한 매체적 특성을 반영하듯, 중심인물들은 모두 과거 사회주의 문학을 했던 인물들로 설정되어 있다. ‘나’와 허민은 카프를 중심으로 인연을 맺게 되는데, 전주형무소에서 수감된 형을 기다리면서 만나게 된 ‘나’와 허민의 이야기는 이들의 서사가 카프 검거사건(1934년)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특히 “열정적인 프로레타리아 시인”이었다가 “문인보국회의 쟁쟁한 멤버”가 된 허민은 일견 카프의 문인이었다가 전향 선언을 남긴 박영희를 떠올린다. 하지만 이러한 친일파-허민의 모습에는 이광수의 이름이 선명하게 삽입되어 있다. 이는 『한계』에 투영된 식민과거가 단순히 사회주의 문학가들의 협력활동으로 한정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혀준다.

『한계』의 허민은 향산민장(香山民藏)으로 불리는데, 이러한 친일파의 이름은 단지 이광수의 내지식 이름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창씨개명 과정자체에서 유사한 원칙을 드러낸다.³¹⁾ 천황의 ‘향산’(香山)에서 성을 따고 자신 이름을 내지식으로 고쳐 ‘민장’(民藏)이라는

31) 한 때에는 정렬적인 프로레타리아 시인으로 알니어졌고 소위 대동아 전쟁이란 것이 시작되자 얼마 안 되어서 백팔십도로 돌아서서 문인 보국회의 쟁쟁한 멤버로서 그 첫소리를 “대동아전쟁과 소위 동포의 진로”라는 일문을 XX신문에 발표하여 조선인의 앞 길을 대동아전쟁에 적극적 참가와 팔평 일우의 대 이상을 보좌하여 성전을 완수하게 함으로써 맹주 일본의 호위 아래 대동아 공영권에서 벼금가는 민족으로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분연히 갈파하여 일정 당국자의 기록장을 얻었고 반도인의 황민화를 설유시키기 위하여 지방 유설대의 선봉으로 조선 각지 중등 학교는 물론이고 멀리 내지에 거주하고 있는 반도인과 유학생을 설복시키기 위하여 과전도 되었고 가슴에 용솟음치는 충성을 맹서하고 보증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香山民藏”이란 창씨와 개명을 발표하고 이 창씨와 개명의 이론적 근거-香山이란 옛날에 일본의 선무 천황이 香山에서 어떻게 하였다던가-하는 유래를 딴 것으로 써 씨를 삼고 民藏은 許民의 민을 따서 반도인으로서 황민이 된 촌수를 명시하고 끝으로 藏자를 붙여 내지식 개명을 하였다는 것을-천하에 공표하였던 이 香山 民藏이 대체 무슨 까닭에 내게 편지를 하였단 말인가? 이석정, 『한계』, 『문학』, 1948.7, 44면.



이름을 만들어 내었다는 ‘향상민장’(香山民藏)의 이름은 곧 이광수의 이름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계」는 친일파 허민의 내지식 이름에 이광수의 이름을 연결시켜 친일파의 삶을 기록하고, ‘나’에게 전달된 편지를 통해 자살한 친일파의 고백을 상상해 낸다.

이광수가 「나의 고백」을 출간했던 1948년 12월 바로 전에 「한계」는 이광수의 이름을 빌려 친일파-허민의 삶을 기록한다. 허민의 삶은 ‘나’라는 대리인을 통해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백의 특수한 형식을 취한다. 친일파의 자기고백을 담고 있되 그것은 민족주의자의 목소리를 통해 발화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일제에 타협한 바 없는 인물로 허민의 협력 행동에 혐오를 가지고 허민의 변절을 비판 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런 ‘나’가 허민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된 것은 우연히 만났던 허민으로부터 스스로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를 받고, 얼마 뒤 허민이 편지의 형식으로 유서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친일파-허민은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를 민족주의자인 나에게 보낸다. 허민은 자신의 부고를 통해 “더럽힌 자신의 생애”가 다시 기억되는 것을 “공포”로 여기고 그것을 두려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자진해서 죽음의 소식을 전한다. 허민의 부고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참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친일파의 모습을 통해 반성하지 않는 당대의 친일파들을 향한 날카로운 질책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그리고 친일파-허민의 자살 소식을 들은 ‘나’는 “과거를 자살로써 청산”한 허민의 행동에 대해 “합작한 일이다!”라고 평가 내린다. 민족주의자의 윤리 속에서 협력의 과거는 죽음으로써 용서될 수 있는 것이라 사유되는 것이다.

이광수가 「나의 고백」을 통해 자신의 친일이 민족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면, 「한계」의 허민은 자살을 통해 친일의 죄를 청산하고 민족주의자인 나는 이러한 선택을 합당한 것



으로 인정한다. 친일파-이광수와 민족주의자-나는 대일협력행위에 관해 명백하게 다른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자살을 통해 허민이 과거 청산을 완료하고자 했을 때, 청산의 과제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민족주의자-나의 정체성이 얼마만큼의 확고한 근거 위에 놓여있는가 하는 것이다.

내 자신 전향을 성명하지 않았고 소극적으로나마 그들과 타 협하지 않아 겨우 후일에 수치를 면하게 된 것은 차라리 내가 정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내게 부여된 환경의 혜택-몸이 불건강 하야 일제 경찰의 재촉(전향을 위한)과 추궁이 다소 소홀하였다는 --그 것과 내 성격의 불철저--이런 것으로 빚어진 것이라기보다 우연한 결과라면 전향을 성명하였고 일제의 전쟁에 협력한 그들과의 거리란 거의 종이 한 장의 차이에 불과한 것 이 아닐까?

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허민을 그렇게 미워할 수 있고 모멸 할 수 있었던 내 궁지의 전부였다면.....

자기가 저지른 일을 자살로써 청산하는 허민
도대체 누구가 누구를 멸시하여야 할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민은 마치 유순한 양처럼 최후를 내게 의탁까지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나는 그후 며칠을 두고 베드나무께서 허민을 최후로 만났던 때의 그의 모양이 눈앞에 선히 살아났었고 “아무튼 나는 반갑습니다.” 하던 말이 이상스럽게도 다시 머리 속에 살아나면서 나를 괴롭게 하였던 것이다.³²⁾

친일파의 부고는 청산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강렬한 비판정신을 드러내는 동시에 민족주의자라고 간주된 ‘나’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친일파-허민이 자살로써 그의 죄를 청산하려고 하였을 때, 과연 민족주의자-나의 삶은 얼마만큼의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32) 이석정, 위의 글, 55면.



를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자살을 선택한 허민과 자신은 결국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죄를 청산하고자 하는 친일파는 협력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자와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은 ‘나’의 비협조가 사상의 철저함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상황에 의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나’는 친일을 하지 않은 것이 환경의 혜택으로, 자신의 “불건강”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그 ‘불건강’이 바로 이광수를 괴롭혔던 ”척추 카리에스“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계」의 친일파-허민과 민족주의자-나의 관계는 스스로를 애국과 패국의 기표 사이에 놓았던 모순된 고백 속의 이광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허민이 자살을 통해 과거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의도했을 때, 친일파의 기표는 민족주의자의 기표와 ‘종이 한 장의 차이’만을 지니게 된다. ‘종이 한 장의 차이’를 지녔다는 ‘나’의 깨달음은 곧 ‘민족주의자-나’의 확고한 정체성을 혼란시키면서,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게한다.“ “아무튼 나는 반갑습니다.” 하던 허민의 목소리를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나’는 청산의 과제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한다. 친일파-허민은 ‘나’의 확고한 정체성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해방 이후의 청산의 문제를 다시 고민하게 만든다. 이제 청산의 과제는 반민족-친일파의 처단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발현되지 않은 민족주의자 그 내부의 협력 가능성을 사유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허민이 ‘나’에게 보낸 유서는 친일파의 처단으로 완료될 수 없는 청산의 과제를 직접적으로 지시한다. 허민의 유서에는 자신이 대일 협력을 하게 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허민 역시 이광수와 같이 자신은 “우리 민족을 영원한 과멸”에서 건지기 위해 협력을 결정하였음을 밝힌다. 하지만 민족을 위한 친일이었다는 허민의 고백이 이광수의 고백과 다른 것은 그러한 자신의 생각이 “악도 승리하는 것”



라는 결론을 얻게 된 “저주받은 회의(懷疑)”의 결과였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지식인으로서 식민현실에 대한 끝없는 고민과 사유를 통해 얻은 결론이 결국은 자신의 판단오류였으며 잘못된 회의의 결과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허민은 이를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이후 친일의 죄에 대한 청산의 과제를 ‘나’에게 남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묘비를 세워달라는 것이었다.

죽은 자의 업적을 기리고 그를 그리워하는 비문은 친일파의 것이 되었을 때, 전혀 반대의 기능을 한다. “젊은이들이여! 잠깐 걸음을 멈추고 여기에 침을 뱉으라!”고 요청하는 허민의 비문은 친일파의 청산이 다만 자신의 죽음으로 끝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지시한다. 허민은 자신의 비문을 ‘나’에게 부탁함으로써 식민 과거의 청산이 과거의 친일파를 처단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해방 이후를 사유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알려준다. 허민의 자살을 알리는 부고가 ‘민족주의자-나’의 확고한 정체성을 혼란시켰다면, 허민의 유서를 통해 이제 청산의 과제는 독립된 국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상속된다.

‘나’는 허민의 유언을 하나의 짐처럼 무겁게 여기고 그의 말에 따라 비문을 작성한다. 하지만 비문을 작성한 이후에도 ‘나’에게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언짢은 마음”이 남아있다. 소설은 바로 그 언짢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³³⁾ 「한계」의 ‘나’에게 있어서 ‘허민’의 존재는 항상 지워지지 않는 불쾌감으로 남아있다. 식민지시기에 허민은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라는 점에서 ‘나’의 불안과 공포를 자극했다. 그리고 이제 자살을 한 뒤, 허민은 새로운 불안을 남겨둔다. 그것은 ‘민족주의자-나’의 확고한 정체성을 균열시키면서 친일파의 자살 후에도 청산이 끝날 수 없다는 예감을 바탕으로 한다. 친일파가 자살로써 스스로를 처단한 후에도 이들은 여전히 ‘나’에게 ‘언짢

33) 앞의 글, 42면.



음’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무덤에 침을 뱉으라”라고 쓴 비석을 세워달라는 허민의 유언에는 기입되지 못한 한 마디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허민이 “사정이 된다면” 자신의 비문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던 “조국의” (젊은이)라는 말이다. ‘나’는 당시 사정으로는 어쩔 수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그의 비문에 “조국”을 넣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 대신 그는 소설을 통해 그의 비문에 적지 못한 허민의 삶을 다시 기록한다. ‘나’는 허민의 삶을 다시 고백함으로써 완성하지 못한 비문에 대한 언짢은 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계』에서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은 친일파 개인의 자살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민족주의자의 의미에 대해 다시 질문하게 만들고 민족의 이름으로 반민족을 처벌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확고한 정체성을 균열시킨다. 아직 “조국의” 젊은이를 향해 말하지 못하는 친일파의 비문은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이 완성되지 못한 비문은 친일파의 죽음 이후에 지속되어야 하는 청산의 과제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제시한다.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다만 독립된 국가의 일원이 되는 것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남아있는 협력의 과거를 꾸준히 기억하고 추모하기를 요구한다. 해방된 민족의 새로운 국가는 반민족을 처벌하고 그들을 소거하여 새로운 국민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과 반민족의 경계를 오갔던 자들을 기억하고 과거에 대한 반성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한계』는 민족주의자-나의 목소리를 통해 죄를 뉘우치고 자살한 친일파의 고백을 전달한다. 이 가상의 친일파는 이광수의 이름을 빌려 등장한다. 이광수가 『나의 고백』을 통해 ‘친일파의 변’을 남겨두고 있다면 『한계』는 친일파의 유서를 통해 과거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다. 그리고 자살이라는 강력한 반성의 태도를 전제로,



새로운 청산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것은 친일파를 법에 의해 죄인으로 규정하고 친일의 죄를 이들에게만 묻는, 혹은 친일파에 대한 법적 처리를 통해 청산이 완료되었다고 믿게 만드는 청산론을 거부한다. 식민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된 국가의 젊은이들에게 협력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오늘의 나를 반성해야한다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다.

『나의 고백』과 『반역자』, 『한계』는 모두 친일파-이광수의 표상을 활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의 통일된 친일파의상을 그려내는 것에 실패한다. 이광수는 제국의 법을 통해 스스로의 민족주의를 증명하는 기이한 방법을 쓰면서 친일파이자 민족주의자인 이광수의 모습을 그린바 있다. 이와 달리 김동인은 반역자-이광수의 모습을 성실히 재현하였지만 결국 친일파와 민족주의자 사이를 표류하는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였다. 『한계』에 이르러 친일파-이광수는 자살한 친일파라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로 상상되고, 이 친일파의 상을 통해 우리는 다시 반민족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게 된다. 친일파 청산을 요청하는 민족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민족과 반민족의 불안정한 구획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한국 문학사에서 이광수는 신문학의 시작지점을 알리는 중요한 인물이다. 하지만 이광수는 근대문학을 수립하는 동시에 민족을 배신한 협력자로 기억된다. 이러한 이광수의 모습은 제국주의와 근대주의의 긴밀한 관계를 체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이광수의 모순적 의미에 주목하여 친일파-이광수의 정체성을 분석하였다. 해방사회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친일파-이광수를 재



현해낸다. 하지만 해방기 친일파로 대표되는 이광수는 반민족이라는 하나의 확고한 기표를 부여받지 못하고 ‘친일’과 관련된 복잡다단한 의미들을 드러낸다.

해방기의 다양한 매체들은 이광수를 친일파의 얼굴로 재현한다. 반민법의 처리 과정에서 반민족 이광수는 지속적으로 호출되고, 민족적 비판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광수에 대한 시선과 반대로 이광수의 고백 소설은 친일파-이광수를 민족주의자-이광수의 모습과 겹쳐놓으면서 반민족을 의미하는 ‘친일’의 기표를 혼란시킨다. 이광수는 「나-소년편」, 「나-스므살 고개」, 「나의 고백」과 같은 다수의 소설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현한다. 자기재현의 서사에서 이광수는 친일을 반민족의 동의어로 설정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민족주의로 환원한다. 이러한 논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광수의 친일과 민족주의가 모두 민족의 발전과 개량이라는 근대적 계몽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광수의 자기재현이 민족과 친일의 기표를 혼용하고 있다면, 김동인은 「반역자」를 통해 이러한 혼동을 거부하고 이광수를 민족의 적, 친일파로 묘사한다. 하지만 김동인 자신이 친일의 기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이광수에 대한 그의 비판은 곧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읽힌다. 그리고 자신을 민족주의자로 설정하는 김동인의 자기재현 속에서 민족주의자 이광수의상을 발견하는 것은 우연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친일파와 민족주의자 사이에서 두 작가들은 민족의 근대화라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석징의 「한계」는 친일파-이광수의 표상을 통해 자살한 친일파의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를 완료하고자 했다. 「한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친일파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살을 통해 완료된 청산을 상상하는 이 작품은 민족주



의자-나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새로운 과거 청산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것은 법에 따라 처벌하지 못한 ‘민족의 죄인’에 대한 비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완료된 후에도 남아있는 지금-여기의 청산을 향한다. 과거 청산은 친일의 주체를 호명하고 처단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국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반성을 목표로, 과거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애도하는 것에 있다. 이와 같은 청산의 과정 속에서 친일의 기묘는 확정되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것으로 남는다. 그리고 국민의 확보와 국가의 수립이라는 긴급한 목표 속에서 소거되었던 제국의 혼적을 발견하고 많은 모순과 폭력을 드러낸 오늘의 국민국가의상을 재사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 중앙일보』, 『경향신문』
 고원섭, 「이완용의 후손들」, 『신천지』 1권 7호, 1948.8.
 김남천 외, 「문학자의 자기비판」, 『인민예술』 2호, 1946.10.
 김동인, 「춘원의 나」, 『신천지』 3권 3호, 1948.3.
 김동인, 「춘원연구」, 『김동인전집』 16, 조선일보사, 1988.
 김동인, 「반역자」, 『백민』 2권 4호, 1946.10.
 김동인, 「망국인기」, 『백민』, 1948.3.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85.
 조연현, 「근대조선소설사상계보론서설」, 『신천지』, 1949.8.
 이광수, 「나의고백」, 『이광수전집』, 삼중당, 1962.
 이석정, 「한계」, 『문학』, 1948.
- 공임순, 「이광수 복권과 문학사 기술의 관련 양상」, 『춘원연구학보』 9, 2016.
 권영민,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운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김경미, 「해방기 이광수 문학의 자진적 글쓰기의 전략과 의미」, 『민족어문학』 59, 2011.
 김현주, 박현호, 「이광수와 근대 한국사회의 감성」, 『한국학연구』 29, 2013.
 김민철, 「탈식민의 과제와 친일파 청산 운동」, 『식민지유산, 국가형성, 한국민주주의』 1, 책세상, 2012.
 김지영, 「『사랑의 동명왕』과 해방기 민족적 영웅의 호명 그리고 이광수」, 『춘원연구학보』 6, 2013.
 김종수, 「1950년대 출판시장에서 이광수의 위상」, 『우리문학연구』 43, 2014.
 노연숙, 「해방 전후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민족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26, 2008.
 방민호, 「해방 후의 이광수와 장편소설 『사랑의 동명왕』」, 『춘원연구학보』 8, 2015.
 송영순, 「해방기 이광수 시에 나타난 ‘고백’과 ‘사랑’의 의미」, 『한국문예비평』



연구』 51, 2016.

서중석,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2006.

서은주, 「센티멘탈 이데올로기; 해방 후 이광수의 “자기서술”과 고백의 윤리」, 『민족문학연구』 58, 2013.

안서현, 「흔들리는 이름-1950~1960년대 ‘춘원 이광수’ 표상의 변화와 담론적 전유 양상연구」, 『상허학보』 44, 2014.

안지영, 「근면한 ‘민족’의 탄생」, 『한국현대문학연구』 50, 2016.

이동하, 「이광수와 채만식의 해방기 작품에 대한 연구」, 『배달말』 16, 1991.

이민영,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국가-집’ 표상 연구」, 『현대소설연구』 49, 2012.

전소영, 「전유와 투쟁하는 전유, 최인훈의 춘원」, 『한국현대문학연구』 48, 2016.

정호웅, 「해방 후의 이광수 문학」, 『춘원연구학보』 8, 2015.

허종, 「해방 후 이광수의 “친일문제”인식과 반민특위 처리과정」, 『대구사학』 119, 2015.

Kim, Seong-Kon, 「Reading Kwangsoo Lee's “my Confession” and The heartless」, 『춘원연구학보』 6, 2013.



『Abstract』

Yi Gwang-su in liberation period and Signifier of ‘Pro-Japanese’

Lee, Min-Young

Yi Gwang-su is an author who started Korean modern literature, at the same time he is a representative person of Pro-Japanese. He embodies a close relationship of colonialism and modernization. Focusing on Yi Gwang-su in a sense of pro-Japanese is enforcing us to remember the colonial past and revealing the contradiction between nation-building and liquidation discourse. On this article, I analyzed the narratives in liberation period that reproduce Yi Gwang-su as pro-Japanese.

There are various representations on Yi Gwang-su in liberation period. In “My confession”, Yi Gwang-su represents his past by himself. The point of Yi’s narrative i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pro-Japanese and patriot. Pro-Japanese in Yi’s novel is described one of nationalist despite of the criticism on Pro-Japanese. The reason that Yi Gwang-su explained pro-Japanese as patriot was because he believed in the universality and reasonability of law in colonial system. In this logic, He could claim ‘the cooperation with Japan for Korean nation’.

Kim Dong-in identified Yi Gwang-su as anti-nationalist in “Traitor”. Kim constituted Yi Gwang-su’s past behavior and thought



in a way of pro-Japanese's. On the other hand, Kim Dong-in try to described his past as patriot even though he was also between the Pro-Japanese and patriot. Yi Suk-jing's novel "limitation" borrowed Yi Gwang-su's Japanese name and imagined the suicide of Pro-Japanese and the completed liquidation. However, the liquidation was not finished after the suicide of Pro-Japanese. It evoked the uncomfortable feeling and questioned the identification of nationalist. This indicates that the signifier of pro-Japanese cannot be settled and completed the liquidation of colonial past is impossible.

Key words: liquidation,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of anti-national activities, self-representation, anti-nation, nation-building, confession novel

투 고 일 : 2017년 11월 10일 심 사 일 : 2017년 11월 10일~1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7년 12월 20일

